

광주시교육청 '청렴 대혁신' 고삐 죄다

李교육감 "지난 15년간 청렴도 3-4등급...기대 못미쳐" 종합정책 수립...부패취약 분야 클린콜·라이브 교육도

광주시교육청이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정책'을 수립,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17일 "지난 15년 동안 시교육청의 청렴도는 3-4등급을 반복, 광주시민과 교육가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시교육청이 불투명하고, 불친절한 기관이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청렴 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업무형태 개선 ▲학교 운동부, 방과후학교, 공사 관리·감독, 계약관리, 인사 운영 등의 청렴 투명성 확보 ▲365일 청렴 문화 정착 ▲고위 공직자 청렴 인식 개선 ▲부패행위 사전 예방 감사·감찰활동 강화 등 청렴도 향상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교육청은 매년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소극행정, 절차 위반, 업무 불투명 등의 행태 개선을 위해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 대민부서 친절교육 집중 실시, 전화 민원 바로 응답 시스템 마련 등 친절 행정에 주안을 둔다.

또 5급 이상 자체 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성과 지표에 반영해 고위직 청렴 책무성을 강화한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학



또 5급 이상 자체 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성과 지표에 반영해 고위직 청렴 책무성을 강화한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학

교 운동부와 방과후 학교 운영, 공사 관리·감독 분야 등 3개 분야는 자체 청렴 클린콜 조사 등을 통해 청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청렴문화 연수로 청렴한 분위기를 365일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오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협업해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진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렴과 고객 만족은 공직자들의 기본 소양으로 저와 부교육감, 국장 등 고위 간부들부터 무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올해 반드시 청렴도를 향상해 광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층 더 개선된 수준의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지구를 굴러라 17일 오후 광주 동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친화도시 '동구 비전선포시 및 머물거지 운동회'에 참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지구 굴리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 /김애리 기자

주말·휴일 포근...가끔 비

이번 주말·휴일 광주·전남은 대체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가끔 비가 내리겠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광주·전남 최저·최고 기온은 8-13도, 19-28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19일은 전날과 비슷한 7-13도, 22-27도 사이로 예보됐다.

20일 이른 오전부터는 광주·전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비가 내린 뒤 21일 광주·전남 최저기온은 13-14도, 최고기온은 18-21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황사 영향으로 18일 광주·전남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보다 조금 낮아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정은정 기자

조선대병원 1분기 암·중증 환자 진료 비율 상승

의료대란 장기화 등 영향...김진호 병원장 "최상 의료서비스 제공"

조선대병원의 올해 1분기 암 환자 및 중증환자 진료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3월 내원 환자 중 암 환자 비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외래·입원 월평균 각각 6%·10% 증가했다.

지난해도 2022년 대비 외래·입원 비율이 월평균 각각 6%·7% 늘어 최근 증

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40% 선을 유지했던 중증·고난도 A군 질환(전문진료질환군) 비율도 올해 2월부터 40% 이상을 기록하더니 3월에는 52%를 차지했다.

3월 조선대병원이 진료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중증·고난도 환자였던 셈이다.

올해 암 환자 진료비율과 전문진료

질환군 진료 비율 증가는 전공의 이탈로 일반 질환 진료 비율이 낮아지고 중증·응급환자 위주 진료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암·중증질환 환자 비율이 증가세를 보여 각종 암 분야 우수 의료진과 최신사양 의료장비 시스템을 갖춘 덕에 조선대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병원 측은 분석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5회 연속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높은 평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김진호 병원장은 "중증질환 내원 환자 증가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조선대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증거"라며 "우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 장비를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더욱 수준 높고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5:57 해질 19:08
🌙 달뜨기 13:53 달지기 03:18

광주	맑음	11/24
목포	맑음	11/19
여수	맑음	13/22
나주	맑음	8/24
완도	맑음	10/25
구례	맑음	10/26
강진	맑음	9/25
해남	맑음	8/23
장성	맑음	8/24
보성	맑음	8/24
순천	맑음	10/26
영광	맑음	8/20
진도	맑음	9/19
흑산도	맑음	11/18
고흥	맑음	9/25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50 🧺 빨래 50 🚗 세차 50 🏃 운동 90

여행 떠나요 야외근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준비운동은 충분히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해 앞바다	0.5-1.0	0.5-1.0
남해 서부	0.5-1.0	0.5-1.0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4월 19일(금)	☀ (11/26)	☀ (12/24)	☀ (15/24)	☀ (12/28)	☀ (14/23)
20일(토)	☁ (14/20)	☁ (14/17)	☁ (13/15)	☁ (14/20)	☁ (15/22)
21일(일)	☁ (13/21)	☁ (11/22)	☁ (11/16)	☁ (14/21)	☁ (14/17)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10:41	03:24
여수	06:03	12:38
녹동	06:56	00:03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만 소등하세요"

광주시,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 운영

광주시는 17일 "'제54주년 지구의 날 (4월22일)'을 맞아 오는 22-28일 '제16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주간은 시민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기후 행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광주시, 자치구, 유관기관, 시민이 참여하는 소등행사 외 각 기관·단체의 자체 행사, 홍보·캠페인이 진행된다.

먼저 20일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지구 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은 34개 단체·유관기관 및 시

건강과 행복! 우리 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모닝서울안과
GOOD MORNING SEOUL EYE CENTER

도안/백내장
라식/라섹
안검하수/쌍꺼풀
눈물길수술

2층 수술센터 / 3층 외래진료센터
- 안구건조증 클리닉 운영

광주 서구 무진대로 965
태영내과21빌딩·메디칼센터 2, 3층
☎ 062.430.2020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에덴병원

진료내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전화 : 062-260-3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 (두암동)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이삼용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표전화 062.602-6114
응급실 062.602-6119

www.ct119.co.kr

광주광역시 광안로 1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 (두암동)

광주시티병원 062.460-7000
응급실 062.460-7119